

‘장흥 고등어’ 전국 밥상에 오르고 ‘장흥 무산김’ 세계 최초 국제인증



장흥군수협이 오는 11월께 회진면 노력항에 고등어 선단 콜드체인(저온유통체계)을 구축, 올해 안에 장흥에서 위판된 고등어가 전국에 유통될 전망이다. 전남의 신어업 생산기지로 부상한 노력항 전경. /장흥=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고등어 생산과 무산김 수출 장흥, 전남 새 어업 생산기지 지역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장흥군이 전남의 새로운 어업 생산기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고등어와 무산김을 양적으로 해 일 자리 창출, 해외 수출, 지역경제 도약 등에 나설 방침이다.

장흥군은 23일 “장흥 노력항에 ‘고등어 선단 콜드체인(저온유통체계) 사업’을 유치해 오는 11월 초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다”고 밝혔다. 바다가 없는 경북 안동이 ‘간고등어’로 유명해진 것처럼 장흥이 우리나라 대표 고등어 상품 가공·유통 메카로 도약할 기회를 잡은 것이다. 연간 2000억원 대 경제 유발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고등어 선단 콜드체인 사업자로 장흥군수협이 선정돼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기반시설 구축 사업이 펼쳐진다. 여객선 운항 중단에 10여 년 문을 닫은 노력항에는 139억원을 들여 올 9월 말까지 급냉시설, 제빙시설, 선별장, 피쉬팩프, 정화조, 인양기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늦어도 11월 초 모선 1척, 등선 2척, 운반선 3척 등 6척으로 꾸민 고등어 선단이 들어와 콜드체인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장흥군 수협은 지난해 5월 수산물 전문 유통업체인 대호수산물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선단 가동 시 서울 가락동도매시장, 노랑진수산물시장, 대구도매시장 등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곧바로 출하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 고등어 조업어장은 제주도과 거문도 해역(80%)과 서해(20%)에 분포하고 있는데, 제주에



노력항에 고등어 선단 콜드체인
상품 가공·유통 메카로 도약
연간 2000억 원 경제 효과 기대



국제인증 획득한 장흥 무산김
미국·중국 수출 경쟁력 확보
착한 먹거리로 김 산업에 혁신

서 장흥까지 운반시간을 기존 10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어 운반선 1척당 2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함은 물론 선도 유지와 품질 향상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장흥군수협의 전망이다. 이로 인해 현재 고등어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부산 선망업계에 장흥의 고등어 선단으로 인해 부산 지역경제에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장흥 어업의 다른 축인 ‘무산김’은 지난 1월 17일자로 세계 최초로 ASC(수산물양식관리협회)와 MAC(해양관리협회)의 국제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자연산과 양식산이 공존하는 것으로 양식업계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할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ASC 인증은 해양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국제 인증 제도이다. 2010년 세계자연기금(WWF)과 네덜란드 지속 가능한 무역(IDH)이 비영리 국제기구로 설립한 수산물양식관리협회(ASC)에서 만든 인증이다. 이번 장흥 무산김의 국제인증을 계기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친환경 착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 김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로써 장흥은 전국 최대의 친환경 인증(2737ha)과 더불어 전국 유일의 ASC국제인증(412ha)까지 획득하면서 어민들에게는 지속 가능한 양식을,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맛있는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국제사회에서 건강을 위해 친환경 제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어 ASC 국제인증을 받은 장흥 무산김이 미국과 중국 등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미 장흥해역은 제주도간 항로가 개설되고, 부산권과 달리 시간 절약과 경비 절약 이점 등의 유리한 여건을 갖춰 고등어선단업계가 최적으로 손꼽았다”며 “콜드체인을 유지해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물론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정책을 확대해 후손에게 깨끗한 바다와 풍요로운 자연을 물려줄 것”이라며 “앞으로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 친환경 어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검수완박’ 유효하다

현재 “검찰 수사권 축소법 유효”
“국힘 의원들 심의·표결권 침해”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상 검찰의 권한을 박탈한다고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전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다만 국민의힘이 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수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 4명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캐스팅보트를 쥐어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를 박탈한다고 제기한 권한쟁의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행위는 문제없다고 봤다.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도 5대4로 기각했다.

현재는 또 이날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현재는 한 장관의 청구에 대해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청구는 “수사권 및 소추권 일부를 국회기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이기에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4월 15일 발의된 개정안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다 정권교체 직전인 4월 30일(검찰청법)과 5월 31일(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반도체·바이오·우주항공 R&D에 25조 투입”

한덕수 총리, 2027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반도체·바이오·우주항공 등 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2027년까지 25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초격차 기술과 지식재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서 핵심 지식재산을 선점하도록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세계적인 경기 둔화, 잠재성장률 저하 등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유인하고 국가경제 제동약을 이르기 위해 핵심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한 신산업·신기술을 육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식재산 기반의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의 선순환 생태계가 확고히 구축되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인공지능(AI) 기반 가치평가 등 평가시스템 고도화, 금융·투자 확대,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통해 지식재산의 사업화와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술보급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특허분쟁 위험을 조기에 탐지해 지식재산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백만기 감액장법률사무소 변리사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범부처 지식재산(IP)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18명을 위원으로 한다. /연합뉴스

인구 수도권 집중화 갈수록 심화 ▶2면

북스 - ‘작지만 큰 한국사, 인심’ ▶14·15면

클린스민 오늘 데뷔전 ‘공격수 수준 높다’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Mercedes-Benz Certified

이보다 쉬울 수 없다 가장 손쉽게 만나는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 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인증중고차 스토어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결제 시스템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중대
- 국내 수입처 최대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